

주말을 부탁해~ 디자인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시민 참여 프로그램 ‘~랑가’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11월3일까지) 열기가 무르익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의 세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가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전시만 보고 가면 손해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행사 기간 문화와 예술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축제를 만들어 간다.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선사하기 위해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 전시와 공연 등이 디자인 축제를 펼쳐진다. 주말 콘서트 ‘거시기, 즐길랑가’, 디자인 마켓 ‘마시기, 가질랑가’, 디자인아이마켓 ‘함께 해볼랑가’ 등 디자인비엔날레 시민참여 ‘랑가’ 프로그램(프로그램 김규령)을 함께 즐겨보자.



◇주말 콘서트 ‘거시기-즐길랑가’=매주 토·일요일과 추석연휴, 공휴일 오후 3~5시에는 비엔날레 전시관 앞 야외무대에서 콘서트가 열린다. 전문 공연인과 예술인,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 난장이다.

예술인들의 다양한 퍼포먼스, 일렉트로닉, 월드뮤직, 클래식, 재즈, 락, 국악, 포크, 힙합, 비트박스와 랩, 팝댄스, 랩리듬스를 비롯해 마술에 인형극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놀기에 충분하다.

당장 돌아오는 토요일(14일)에는 빛고을페스티벌안상불의 클래식 공연과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 소속 ‘강윤숙 jazz quartet’의 재즈 공연이 준비돼 있다. 15일에는

◇디자인 마켓 ‘마시기-가질랑가’=주말 콘서트와 함께 ‘지갑을 들었다, 봤다’하게 만드는 예술장터도 오후 2~5시 비엔날레 광장에서 진행된다.

시민들과 아마추어가 만들어내는 디자인 장터에는 수공예품, 목공예를 비롯해 캐릭터 일러스트, 조명, 세라믹, 목공예, 캘리그라피, 안경케이스디자인, 페이퍼토이 등 다양한 디자인 아트 상품이 전시·판매된다.

도예공방 일여현, 대한공예심리협동조합, 예사, 소단 광방, 우들맘핸드메이드, 달마루, 바늘따라, 수 바느질이야기, 이음새, 광주국제교류센터, 다겸아트 등 30여팀이 참여한다.

◇디자인 사이마켓 ‘함께 해볼랑가’=단순히 보고 즐기기 끝나면 직접 참여해보자.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25일까지 디자인아이마켓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5~27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운영되는 디자인아이마켓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상품, 개인 창작물들을 판매하는 장터다. 가족, 부부, 형제자매, 연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디자인아이마켓 신청서와 디자인상품 사진을 광주비엔날레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wangjubien-nale.or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08-4251~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국악·팝댄스·마술공연 ‘야외콘서트’

아트상품 전시·판매 ‘디자인 장터’

창작물 직접 파는 ‘디자인 사이마켓’



매주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 야외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국제예술가들과 다양한 실험작업을 통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t Aussi(김봉호&Bacque Celine)’팀의 퍼포먼스, 즉흥무용이 시민들을 만나고, 이어 락 밴드 ‘울디스美貌’가 옛것의 느낌을 새롭게 표현한 음악을 들려준다.

18일에는 타악그룹 얼쑤의 무대로 콘서트가 꾸며지고, 19~22일까지 광주팝스오케스트라(세미클래식), 한율 민요춤동아리(국악), 교육극단 파랑새(인형극·뮤지컬), 로로캄보밴드(재즈), 청곡프로젝트 소리치다(창극), 차이나마직(마술·변검) 등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홍초밭 한때’

강진 미산마을의 서정

박혜순전 13~24일 강진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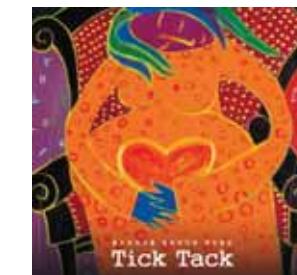
서양화가 박혜순씨의 개인전이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강진아트홀 전시실과 화랑에서 ‘몽(夢)-미산(眉山)’을 주제로 열린다. 작가는 현재 살고 있는 강진청자박물관 일대 미산마을을 모티브로 서정적 풍경을 원숙한 색으로 담은 작품들을 전시한다. 문의 061-430-3972.

화 작품 외에도 테라코타 등 모두 3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광주 출신인 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임직순 선생 등 남도 서양화 1세대들에게 회화수업을 받았으며 현재는 강진에서 작품 활동에 매진중이다. 문의 061-430-3972. /남철희 choul@

아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리랑’

‘루트머지’ 첫 태교음반 발매 …25일 아리랑 주제 콘서트



따뜻한 느낌의 주황색 치마를 입은 엄마가 배를 감싸 안고 있다. 엄마 벗속에 꼭 안긴 건 아

기름 상징하는 붉은 색 하트. 그룹 ‘루트머지’가 25일 발매할 ‘틱택(Tick Tack)’의 표지 그림은 태교 음반 커버와 딱 어울린다. 가야금과 해금, 콘트라베이스, 드럼 등 동·서양 악기 어우러진 ‘루트머지’의 음악 역시 은화하고 편안하다. 음반 제목 ‘틱택(Tick Tack)’은 엄마 벗속의 아이 심장 소리를 뜻한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리더 홍윤진)가 첫번째 태교음반을 내놓았다. 지난 2008년 결성된 ‘루트머지’는 한국 전통 산조의 자유로운 형식을 빌려 다양한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룹이다.

‘뿌리’를 뜻하는 ‘root’와 ‘융합’을 뜻하는 ‘merge’를 합친 그룹 이름 ‘루트머지’는 바로 그런 단원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번 음반에 실린 음악은 모두 11곡. 비발디의 ‘사계’,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거북이’ 등 듣기 편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아리랑’을 소재로 한 다양한 창작 작품 8곡을 함께 담았다. ‘아름다운 우리 선율을 베속의 아이부터 들려주고 싶은 마음’

에서다. ‘진도 아리랑’의 멜로디를 모티브로 한 블루스 연주곡 ‘Bluesy Arirang’ ‘25현 가야금을 위한 It’s’ 등이 실렸다. 음악은 박진우·최지경·루나씨가 작곡했으며 홍윤진·임지화·김종일·김현화·차유정·박예진·황지훈씨 등이 연주했다. 표지 그림은 화가 주홍씨의 작품이다. 25일부터 인터넷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루트머지는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아리랑’을 주제로 한 4번째 콘서트 ‘네오(Neo Arirang)’ 세계를 노래하다’도 개최한다. 광주문화회관 낮도소리 상설무대 초청공연이다.

‘루트머지’는 ‘아리랑’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 5년간 다양한 곡들을 만들고 연주해왔다.

‘아리랑’이라는 세월을 담긴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루트. 아리랑’, ‘Over the Arirang’, ‘산을 그리다’ 등과 재즈 보컬 김희선씨의 목소리로 듣는 ‘밀양아리랑’이 준비돼 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10-3610-0767. /김미온기자 mekim@

친일 논란 ‘난파 음악상’ 수상 거부 잇따라

작곡가 류재준 이어 소프라노 임선혜씨도

작곡가 류재준(43) 씨가 수상을 거부하며 논란에 휩싸인 난파 음악상을 소프라노 임선혜(37) 씨도 받지 않는다.

임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기획사 CMI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

서 “임선혜 씨와 상의 끝에 이날 오후 난파 기념사업회 측에 수상을 거부한다는 의사 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친일 논란으로 이미 뜨거운 이슈가 된 사안에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난파기념사업회는 전날 난파음악상을의

을 수상자로 결정한 류씨가 “친일 음악인의 상을 받고 싶지 않고, 일부 수상자 중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며 수상을 거부하자, 차접자였던 임씨를 수상자로 재선정했다.

임씨는 이 같은 논란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수상자 통보를 받아들였으나,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당황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파기념사업회도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수상 거부와 친일 논란 등으로 논란이 된 만큼 다른 음악가를 수상자로 재선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 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상표등록 : 41-0241299호

낙지의 명가 5.18 낙지
제이팅 낙지를 모십니다.

체인점
문의

☎ 061-375-2383
HP. 010-6656-0002

